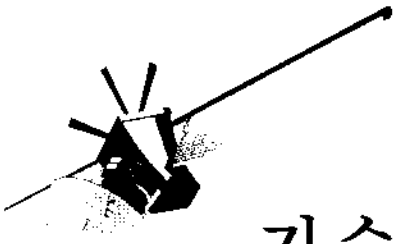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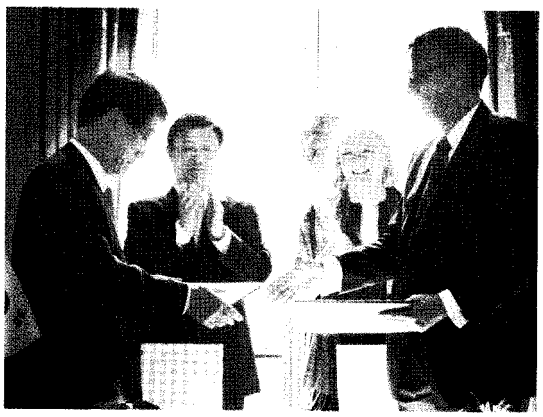


기술표준뉴스

한 · EU 기술표준 협력 강화

유럽의 표준과 기술규제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한층 쉬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술표준원과 CEN/CENELEC간에 기술 · 표준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매년 한 차례씩 정례회의와 공동워크샵을 개최하여 표준과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다.

유럽에서 유럽표준이 제 · 개정 될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보의 입수가 늦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특히 유럽의 환경규제와 CE 마크 등 많은 기술규제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기에, 이번 MOU가 우리 기업들에게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 10일과 13일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표준화기구(각각 SN, SIS)와 표준분야 MOU를 체결하고, 국제표준화 강국인 북유럽 지역과도 기술 · 표준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노르웨이의 NEMKO 및 스웨덴의 SEMKO와 시험성적 상호인정 MOU를 체결하여 유럽 내에서도 우리의 시험성적서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술표준원은 향후 한-EU FTA 발효와 함께 우리기업들이 유럽의 표준과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 기술규제 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CEN(유럽표준화위원회) :
  The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 CENELEC(유럽전기전자표준화위원회) :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 NEMKO(노르웨이 시험인증기관) :
  Norges Elektriske Materiellkontroll
* SEMKO(스웨덴 시험인증기관) :
  Svenska Electriska Materielkontrollanstalen

대한민국 대표상품, 7월1일부터 K마크 단다

'에쿠스, 파브LED TV, 디오스냉장고, 쿠쿠전기압력밥솥, 스팀청소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품들이 7월 1일부터 새로운 국가통합인증마크 ' '를 달고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을 누비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그 의미조차 알기 어려웠던 여러 종류의 인증마크 대신 'KC마크' 하나만 확인하고서도 양질의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선 7월 1일부터 공산품안전인증, 고압가스용기검정, 계량기 검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에 'KC마크'가 도입되며, 금년 1월 1일부터 KC마크를 적용한 노동부 소관 '안전인증' 및 지식경제부 소관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2개 인증을 포함하면 10개 인증이 KC마크로 통합되고, 다른 부처 소관의 정보통신기기인증, 물마크인증, 소방용품검정 등 3개 인증은 2011년부터 'KC마크'가 도입된다.

'KC마크'가 도입되는 제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유모차, 승강기, 조명기기, 저울, 전기계량기 등 736품목으로서 수많은 모델의 생활필수용품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KC마크는 7월1일 이후 신규로 인증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나, 기존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도입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2년간 'KC마크'와 기존 인증마크를 병행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홈페이지 : www.kcmark.or.kr,
  블로그 : blog.naver.com/kcmark

산업체 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및 기술표준원 공동으로 KC마크 시행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6.30), 향후 반상회, 지역민방 등을 통한 전국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표준화 추진

기술표준원은 온실가스 관련 표준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량 또는 산정에 참고하고 있는 표준 및 지침은 IPCC, WRI 등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준 또는 지침은 우리 실정에 잘 맞지 않아 기업이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기업 실정을 감안한 온실가스 관리 표준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하에 온실가스

관리 국가표준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표준을 개발 또는 개정하기로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절차·지침 표준을 위한 조사연구를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2013년까지 15종의 표준을 개발 또는 정비하여 국가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산업분야별 온실가스 관리 표준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온실가스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관리 표준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협약과 국제환경규제에 미리 대응하고, 국민건강과 환경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 WRI : World Resources Institute, 세계자원연구소

"테니스채 모양의 전기모기채"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기술표준원은 유통중인 여름철 전기용품 14개 품목 122개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전기모기채, 선풍기, 전격살충기, 전기소독기, 누전차단기 등 5개 품목 5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 및 판매중지를 조치하였다.

전기모기채는 "테니스채 형태"로써 구조적 특성상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가 개방되어 있고, 전원스위치를 끄더라도 수천 볼트의 전압이 소멸되는데 최대 13초가 소요된다. 또한 어린이가 장난감으로 오인하여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사용할 경우 스파크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는 2살 남아와 5살 여아가 각각 전기모기채로 인한 감전사고로 치료를 받은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해외(태국)에서 3살 남아가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전기모기채를 가지고 놀다 화재로 인한 화상을 입은 사고도 알려져 있지만,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에서는 교류 50~1,000V를 사용전원으로 하는 전기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전지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전기모기채를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줄 것을 당부하며, 건전지를 사용하는 전기모기채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KS 수도용 제품의 안전성 대폭 강화

기술표준원은 국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용 강관 및 밸브

기술표준뉴스

류, 수도꼭지 등(이하 수도용 제품)이 물과 접촉할 때 용출(溶出)되는 중금속 등의 허용 기준을 일본 기준(JIS)에 준하여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을 강화하고 개정고시('09.7.17)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08년 4월부터 1년여에 걸쳐 수도용으로 사용되는 KS 인증 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용출 시험 데이터와 일본의 용출 허용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된 것이다.

특히 납의 경우, KS 제품 중 수도용 밸브에 대한 용출허용치를 현재의 0.005mg/L에서 5배 강화된 0.001mg/L, 카드뮴은 0.001mg/L에서 2배 강화된 0.0005mg/L 로 규정함으로써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함과 더불어 KS 인증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KS 인증업체는 개정된 용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KS 개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KS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수도용 제품을 생산하는 KS인증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표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3개월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인증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불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9 행정학 공동 학술대회 개최

기술표준원은 6월 25~27일(단국대학교), 한국행정학회, 한국규제학회 등 17개 행정관련 학회가 주최하는 '2009 행정학 공동 학술대회' 에서 「글로벌 환경변화와 표준정책」세션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순애 교수는 '표준정책의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배제대 김범한 교수의 '표준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툴 개발' 등 표준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서울여대 행정학과 한승준 교수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으로서의 기술규제제도 개선방안' 에 대해 발표하였다.